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개관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KIF 연구총서 2020-01]

구 본 성 (은행·보험연구1실, 선임연구위원, 3705-6364)
이 순 호 (은행·보험연구2실, 연구위원, 3705-6186)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과 BigTech 등 비금융업자의 참여, 그리고 3저 현상(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이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 정책적 이슈 및 미래과제를 점검하고 있음. 우선 디지털화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완전한 대체 효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핀테크의 가치창출 경로, 디지털화가 국내 금융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 협업 및 경쟁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국내 금융산업은 비금융업자의 참여에 따른 복합화와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의 완전한 대체, 플랫폼(marketplace) 및 글로벌 BigTech의 직간접 참여를 고려한 복합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함. 핀테크의 참여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의 특별성, 고유성,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규제의 범위를 기능적 분화를 고려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과제는 글로벌화와 금융자산의 축적, 그리고 기술혁신 및 리스크관리의 고도화를 통해 선진국형 금융시스템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될 것임. 특히 3저 현상 및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과 해외금융, 자산운용 등 투자형 금융서비스의 기반을 확충하는 시장구조 개혁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배경]

- 디지털화와 3저 현상,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2030년 비전과 미래모습, 발전과제를 모색
 - 디지털화에 의한 금융기능의 변화와 3저 현상,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등은 현행 금융서비스의 전반적인 대체(소극적 측면)와 금융서비스 제공자

와 금융소비자 간 새로운 관계(적극적 측면)를 형성

- 국내 실물경제도 신흥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이 절실하며, 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적 역할 및 서비스 기반의 재정비와 시장구조의 변화가 필요

[주요 내용]

- (디지털화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가상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고도화 및 정교화, 시공간을 넘어서는 다면적 관계, 디지털 자산의 확충, 해외시장과의 연계·개방 확대, 비금융기업의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의 복합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
 - 특히 BigTech 등 핀테크의 혁신에 대해서는 규제 및 기술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비용 및 리스크, 소비자 보호, 통제기능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필요
- (3저 현상 및 코로나 위기가 금융에 미칠 영향)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 (은행 및 보험업) 성장성의 위축뿐만 아니라 마진 축소나 수익구조의 전환, 부채위험의 증대 등에 대비
 - (금융투자업 및 자산운용) 대내외 투자수요의 증가와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른 신 성장기반을 강화
- (국내 금융산업의 SWOT 분석)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SW) 3저 및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적합한 신금융서비스를 구축(WO)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활용한 선진국형 금융체계로의 전환(SO) 노력을 강화하고, 복합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율체계를 신속히 정비(WT)할 필요

[결론 :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비전과 발전 전략]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은 글로벌형, 금융자산형, 복합형 금융서비스를 정착시킴으로써 선진국형 금융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확장해 나가는 것이 될 전망(〈그림〉 참조)
- 업종별 핵심 경영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은행권은 플랫폼과의 소매금융 경쟁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해외금융 확대를 위한 리스크관리의 혁신을 추진
 - 보험·연금권은 보장 및 장기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비금융업종과의 연계성을 활용하여 상품 및 채널 혁신에 의한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장기대응 체계를 구축
 - 금융투자권은 대내외 투자금융 수요에 대응한 자산운용 역량의 개선으로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시장개방형 전략을 재강화
 - 비은행권의 경우 지역·서민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포용성을 유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의 경우 단기적인 신용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강화와 장기적으로 완전한 대체에 의한 기능분할에 대비

- 규제·감독 측면에서는 복합형 규율체계의 시스템 안정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장규율, 그리고 소비자효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둬으로써 전체 금융서비스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확보
-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은 기술, 정보, 개방에 기반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재구축(re-construct), 글로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재평가(re-rating), 복합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안정성을 재구축(re-build)하는 선순환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 **KIF**

〈그림〉 한국금융의 2030 비전

